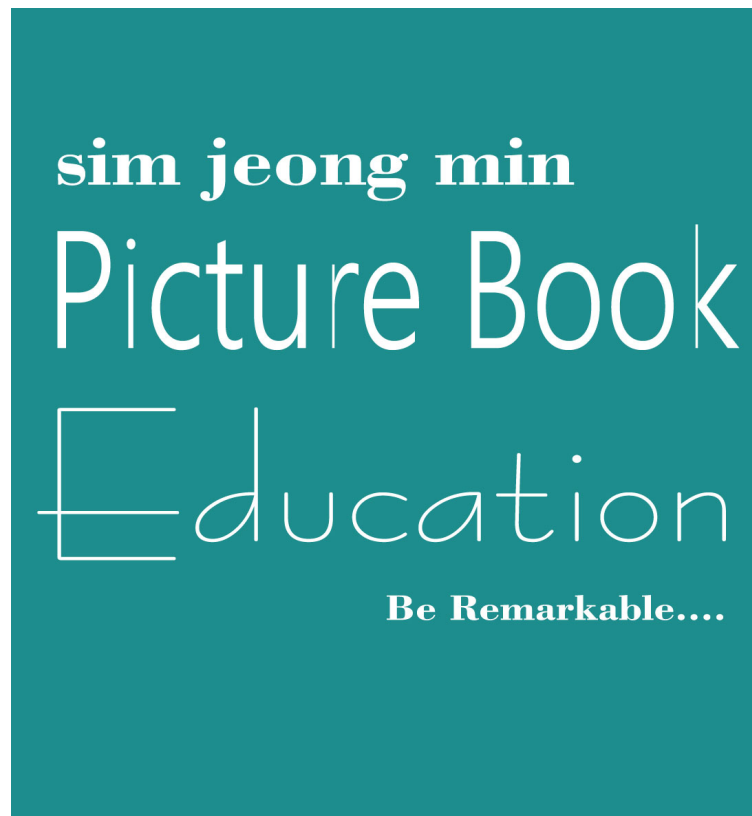


초등 어린이들의 수업과정



자료 출처: [하늘을 나는 그림책] 교육 개발 출판부 20140566

심정민 그림책 교육 연구소

이제 아이들이 나이 한 살을 먹으면 엄마들은 또 다시 무슨 교육을 시킬지 걱정하듯 고르기 바쁩니다. 현재 그림책 수업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7세 아이들의 경우 1년 수업을 하면 더욱더 중요성을 느낍니다.

하늘을 나는 그림책 수업은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유아와 초등은 다르기 때문에 8세의 엄마들은 초등가면 어떤 수업을 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8세가 된 아이들의 수업과정은 이렇습니다.

1. 기존의 메이킹 게임을 통해 스토리텔링 수학의 비중을 높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기존 수업하고 있는 방식에 단계가 올라갑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교육 요소가 단계이며 그림책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2. 메이킹 게임은 그림책의 키워드를 발견하고 키워드를 활용하여(단어와 문장) 게임판을 구성하고 그림책의 스토리대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 게임은 그림책의 스토리를 줄거리로 정리해서 전체와 부분으로 게임하는 것이고

이후의 과정에서는 응용 스토리를 만들고, 확장 스토리를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놀이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는 기본 스토리를 가지고 놀이를 했으며 앞으로는 초등에서는 그림책의 중심상황을 응용하여 부분적으로 응용스토리를 만들고 (쓰기와 연계/ 그 창의적 쓰기의 기초로 자신의 스토리에서 주제명 설계와 목록화는 기본으로 들어감) 그림책의 기본 스토리+ 나만의 부분 응용 스토리를 결합하여 확장 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확장 스토리의 단계는 분석, 비교, 탐구, 예측, 문제제시, 다양성 해결 등의 상위 교육 요소로 창의적 쓰기의 교수법을 수행하고 논리적으로 글짓기(창의적 사고 기본으로 포함), 비판적 사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모든 글쓰기의 활동은 메이킹 게임으로 만들어집니다.

초등의 메이킹 게임은 아이 스스로 독창적인 사고 발현과 위 3단계의 스토리를 토대로 창조적으로 구안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이킹 게임의 기본 수업을 1년 이상을 해야만 어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발현하고 게임을 만드는 다양한 창의적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 터득의 과정이 곧 사고력과 스토리텔링, 언어능력 향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3. 지식 중심 상호작용과 상상 중심 상호작용을 통한 완벽한 토론학습을 수행합니다.

토론은 교수법으로 진행되며, 진정으로 말 잘하는 아이로 키워집니다.

단.... 처음 수업을 받는 초등의 경우 무조건 3~6개월 정도는 기존 수업의 기초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4. 다이어리의 활동 비중이 높아집니다.

다이어리에 자신의 모든 창의적 쓰기를 프레임구성과 게임으로 상징화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위

한 설계를 하고 발표하기를 진행합니다.

한권의 그림책을 프리젠테이션하기 위해 상징화 및 도식화를 하는 과정을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키워드 발견, 중심상황 발견, 문제 발견, 결과 도출, 스토리텔링 등이 그림책의 스토리에서 기본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메이킹 게임은 이 수업을 하기 위해 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학교 가는 어린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취학전 아동을 둔 부모들은 걱정을 합니다. 이제 곧 학교 가는 부모님들에게 말해주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현재 취학 전 아이들이 어떤지 원장님이 체크해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방법을 엄마에게 가르쳐주세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다닐 학원은 아이와 함께 계획합니다. 엄마가 모두 계획해서 아이에게 다니라고 하기보다는 엄마가 몇 개의 학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추천 분야의 학원을 아이와 함께 골라서 그 학원을 다니도록 합니다.

직접 계획하고 선택한 학원은 잘 다니게 되어있고 일단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은 자신의 의견을 물어 선택하는 순간 90%는 되었다고 보여줍니다.

2. 아이의 자신감을 확인합니다. 아이가 혹시 위축되어 있지 않은지, 소심한 성격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아이가 위축되어 있다면, 아이의 장점을 부모가 늘~ 웃는 얼굴로 이야기 해줍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른 아이와 비교를 잘하다보니 아이의 단점은 잘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혹시 남에게 들킬까 절대 드러내지는 않죠. 오히려 나만 알고 감추려고 하죠. 단점을 머릿속에 인식하며 감추려기 보다는 장점을 보게 합니다. 우리아이의 좋은 점을 종이에 꼭 나열해 보라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 장점을 나열하다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알아가는 방법은 종이에 우리 아이에 대해 적어보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초등학교 가는 아이는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아이들 또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아이에 대해 적어보고 아이의 장점을 꾸준히 각인시켜주세요. 이것이 곧 자신감을 은근 슬쩍 빠르게 향상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아이 또한 위축됨은 없구요.

3.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라

긍정적인 아이는 학교생활을 하기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만나면서 한 교실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아이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없음에도 그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신경을 씁니다. 예민한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에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고집피우고 욕심 부리는 사람,

친구들을 놀리는 친구, 자꾸 장난을 치며 툭툭치면서 놀자고 하는 친구 등등..... 여러 행동 특성을 이야기 해주며 세상엔 너무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과 너가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잦은 대화로 나눠주세요.

4. 협력하려는 자세가 좋은지 보라

협력은 사회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협력하지 않고 혼자서만 잘하는 아이, 혼자서만 하려고하는 아이... 은근 많이 있죠. 협력하면 더욱더 큰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절대 다 잘할 수 없으며 완벽할 수 없음을 인식시키고 함께 하면 더욱더 즐겁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해줍니다.

무엇을 혼자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은 너무도 조용하고 낮을 가리는 정도가 좀 있습니다.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기 보다는 혼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몰두하면서 자신의마음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출해내죠. 이것 또한 좋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이러한 능력을 누군가와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하고 함께 할 때 더욱더 재미있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더욱 찾아내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합니다.

협력 자세를 키우는 방법은 가족들끼리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한다고 아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더라도 엄마가 하는 일의 일부분을 나눠 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에 역시 협력하니까 훨씬 빠르고 성과도 높다 라는 식의 발언을 꾸준히 하게합니다.

5.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확실한 자아를 형성했는지 보라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는지 보라, 말하기는 습관이다. 또박또박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아이들이 말을 할 때 보면 목소리작고 끝을 흐린다거나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단 입술에 살짝 힘을 주고 입모양을 만들어가듯 말을 해야는데 입이 벌려지지 않으니 소리가 나오는 것도 작을 수 밖에 없다. 말하기가 또박또박 된다면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말하게 하라. 무조건 말 할 수 있다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이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할 때를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7,8세에는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나 생각했을 때 손을 번쩍 들고 하나를 말하는 습관을 길들이자.

6.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 보라

의존적인 아이는 일단 엄마가 힘들다. 엄마가 학교갈 준비를 다해줘야한다. 자신의 것을 스스로 챙기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 시간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모른 아이가 있다. 그것은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엄마에게 있어서이다.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다

면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아이에게 맡겨라. 그리고 부모는 체크만하면 된다.

자신의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고 건성건성 잘 잊어버린다고 엄마가 챙겨주기 시작하면 안된다. 자신의 것을 정말 챙겨가지 못해 혼도 나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혼날까봐 걱정을 한다. 그래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우려한다. 그러다가 아이는 그렇게 의존적으로 습관이 되고 후에 진짜 사회에 나갔을 때 더 혼이 나도록 자신이 힘들어진다.

7. 주위 산만 없이 집중하고 몰입하는지 보라

학습에 최대의 적은 주위 산만 이다. 그것보다 더한 적은 자기 주도성이 없는 것이다.

일단 자기 주도학습은 일정한 교육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자기 주도활동은 8세 이전에 형성되기에... 현재 다루기에는 다소 늦었을 수도 있다.

아님, 자기 주도 학습의 훈련을 별도로 시킬 수도 있다.

일단 산만한 어린이의 경우 담임선생님이 문제아로 낙인찍혀보기 쉽다.

산만한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자.

일단 책을 보게 한다. 책을 보는 시간을 1일~3일 정도는 10분을 준다. 10분이 넘으면 책을 덮게 한다.(더 보고 싶어하더라도..) 4~6일 정도 12분

7~10일 정도 15분.... 점점 시간을 늘려간다. 아이도 모르게 2~3분 정도 늘려가는 것이 좋다.

실제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2달을 해서 집중시간을 늘린 아이들이 꽤 있다.